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 내용 및 원인과 결과: 합의적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선혜연(宣惠娟)*

이제경(李濟慶)**

김선경(金仙卿)***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최근 상담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인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을 토대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진로고민 내용과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진로고민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각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현재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 12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심층면접 자료를 5명의 연구자들이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두 명의 감수자가 결과를 감수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 내용은 '진로목표의 부재'와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음'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났고, 다양한 대학생들의 진로고민들은 대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심각함으로 느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진로고민의 원인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흥미-적성 혹은 적성-전공간의 불일치', '정보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 '부모님 반대 혹은 가정형편' 등이 이유로 보고되었다. 또한 진로고민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서는 외적인 부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의욕상실, 불안과 초조, 자신감 하락, 정체감 혼란과 같은 내적인 부정적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후 이러한 본 연구결과가 대학생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현장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진로문제, 합의적 질적 연구(CQR)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조교수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강사

I. 서론

최근의 대량 실업사태와 경제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과 더불어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몰두한다. 이는 졸업 후 1년의 직업적 지위가 향후 직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첫 직장이 향후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시험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 준비(행동적 영역) 또한 의사결정(인지적 영역)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계현, 2000). 그러나 많은 대학생이 행동적 차원에서는 취업준비에 몰두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대학상담센터에서 진로문제는 주요 상담주제이기도 하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에 입학 이후 바로 시작되는 대학생들의 고민은 포괄적인 진로문제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을 대비한 구직문제까지 그 범주가 넓다.

이러한 호소문제의 배경이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진로고민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거나 일과 관련한 경험의 부재, 막연한 낙관주의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인 뿐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의 무조건적인 요구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나 입시차원의 문제를 원인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생 진로상담 현장을 보면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으나 사전에 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진로관련 문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상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입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 상담센터는 진로정보센터, 혹은 경력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진로 및 취업부문을 서비스 하고 있지만, 이 기관 내의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특히나 진로문제가 일반 심리 상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러면서도 순수 심리 상담과는 달리, 객관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상담자는 더욱 부족하다.

또한 각 대학상담센터는 문제 유형분류를 진로와 학업을 묶어서 실시하고 있거나 진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로문제 영역의 차별적 개입을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상담에서 진단은 주로 내담자의 지식, 정보처리 기술, 준비성, 그리고 문제해결과 결정에 필요한 개입전략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내담자의 수준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Zunker, 2002). 또한 상담에서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돕는 과정의 첫 단계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문제유형분류체계의 활용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황매향, 2009). 특히 진단은 내담자 문제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명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의 출

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강민지, 2007). 하지만 각 대학에서 제공되는 진로상담서비스는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체계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며, 아직도 많은 대학이 서비스 대상자인 내담자의 문제 및 사례의 특성에 따라 개입이 차별화 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상담센터에 찾아온 학생들의 주요 호소 문제를 분류하기 위한 틀로서 문제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진로문제와 학업문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진로문제의 세부내용을 심도 있게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이해나 개입 방안을 달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대학의 상담관련 기관뿐 아니라 국내 고용지원센터를 비롯한 진로 상담 장면에서도 대학생들의 진로문제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전략이나 방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진로문제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처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진로미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제까지의 진로미결정 연구는 진로미결정상의 문제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세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결정과 미결정의 원인에 주력해왔다. 또한 미결정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으나 주로 진로결정여부나 미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진로결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고민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합의적 질적 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통해 우리나라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 그리고 이러한 진로고민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내용 혹은 원인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내담자 문제 분류와 진로미결정

내담자 문제 분류체계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와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의 원인, 증상, 개입전략,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문제와 해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상담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가 된다(황매향, 2009). Gati, Krausz와

Osipow(1996)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류가 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한 가지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유형화된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많은 경우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정신역동적 접근은 관찰가능 한 증상 대신에 개인의 내적 원인에 따라 문제를 분류하였고(Bordin, 1946), 발달적 접근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정상적 발달단계에 따르는 것으로 보면서 직업적 성숙도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Super, 1953). 직업적 흥미에 따른 접근에서는 개인의 진로 결정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흥미에 대한 구체화가 불충분했기 때문으로 보았다(Holland, 1985; Roe, 1956).

진로상담 내담자들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과 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들 간의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로서 출발했으나 이러한 연구들의 상호일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에 만족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일부의 연구자들이 진로결정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예, Career Decision Scale,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80; Vocational Decision Scale, Jones & Chenery, 1980), 이러한 측정도구의 제작을 전후하여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된 불안, 진로정체감, 통제 의 소재, 자아존중감, 의사결정양식 등의 변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김계현, 김봉환, 1997). Fuqua와 Hartman(1983)에 따르면, 진로결정은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단순히 의사결정을 했거나 또는 하지 못한 상태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로결정과 미결정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이루어져야 보다 적절한 상담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Jones & Chenery, 1980). 즉, 이는 결정과 미결정에 대한 단순한 분류 이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개입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대학생의 진로문제 및 관련변인

대학생 시기는 현실적 직업선택의 실천단계로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고, 직업목표를 설명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Ginzberg, 1972; Super, 1953). Gati, Krausz와 Osipow(1996)는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동기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은 정보의 부족,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의 부족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지만(Blustein et al., 1997; Holland &

Holland, 1977) 그동안 진로상담연구에서는 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심리적 독립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한다(박수길, 이영희, 2002; 선혜연, 김계현, 2008). 흥미와 진로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 & Chou, 1994). 즉, 서구문화에서 진로선택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선택인데 반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의 진로선택은 자신과 가족모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국내에서도 진로의사 결정과정에서 가족 관련 변인이 실제 대학생의 진로취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자주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수길, 이영희, 2002; 양난미, 2006; 이득연, 홍경자, 2004). 최근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과 개입요인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탐색한 임은미(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 핵심범주로 ‘성공과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감’을 꼽았다.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환경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와의 진로선택 갈등 여부, 소속 전공과 학과에 대한 자부심,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 등이 주요한 개입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많은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의 원인인 동시에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입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고민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은 진로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체계화한 자료나 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조항(2009)의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에 게재된 총 141편의 논문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65.2편으로 46.4%에 달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진로연구의 주제나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대학 내 연구에서도 진로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업문제와 함께 분류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장미화, 임현술, 최원상, 2005). 예를 들어 박제일과 임승환(2002)은 학내 상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한 537명의 학생들이 호소한 문제유형을 분류하여 호소문제 유형과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살폈는데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학내 상담실을 찾은 대학생들의 호소문제 대부분은 ‘학업 및 진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진로문제를 학업문제와 같은 분류로 생각하여 진로문제만의 독특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임언 등(2004)은 이공계 재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로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3년에서 2004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scieng.net)의 진로상담 게시판에 진로상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유형화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scieng.net의 진로상담사례 2,017건 중 100건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진로문제를 확정지었는데 확정된 문제 유형은 대학 및 학과 선택, 대학원 진학, 졸업 후 진로, 국가고시 준비, 진로준비, 학업 적응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문제에 초점을 두고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나 이공계 재학생의 온라인상에 나타난 진로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이제경 외(2010)는 대학생이 진로상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했는데 대학생들은 주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34.8%)'에 대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고, '진로와 관련된 나의 이해(34.5%)'와 '결정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및 실천(17.1%)',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13.4%)'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은 학업이나 대학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이제경 외, 2009)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으며(예, 박선희, 박현주, 2009),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결정을 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영경, 200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한 고민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기존의 진로미결정이나 진로결정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한국대학생만의 독특한 진로고민 내용이나 현재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진로고민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진로관련 문제들이 학업 및 대학생활 적응, 정서적 어려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의 내용, 원인, 그리고 파생적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문제별 차별적 처치에 입각한 적절한 진로상담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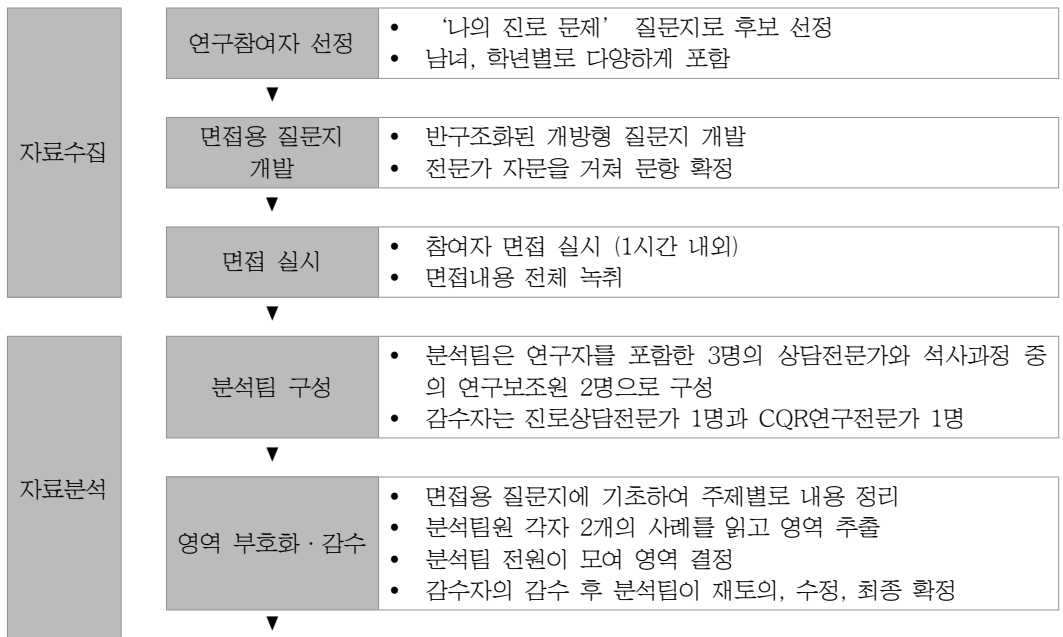
첫째, 진로미결정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문제의 내용과 원인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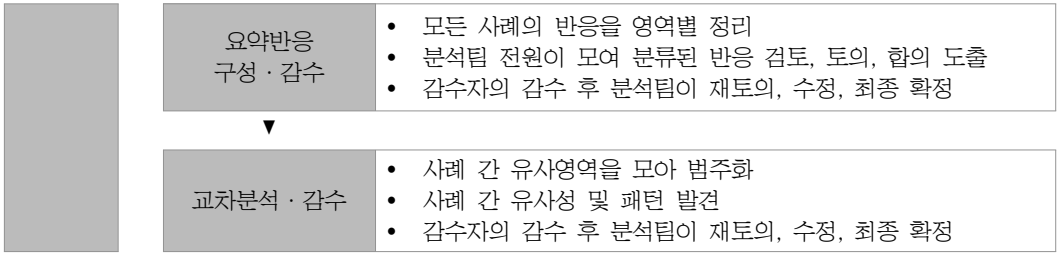
둘째,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고민에서 파생된 개인 내적 혹은 외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진로고민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 원인,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생문제까지 폭넓은 주제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경험들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였다(Merriam & Simpson, 2000). 질적 연구의 여러 방법론 중 CQR은 심리상담 연구의 전통에서 요구되는 양적연구적인 객관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고려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Hill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CQR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①자료수집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을 하며, ②자료분석시 여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③수집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연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④주요 분석팀 이외에 적어도 한 명의 감수자가 있고, ⑤자료분석시 영역 부호화, 요약 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는 점이 있다(Hill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CQR에서 제안된 지침에 따라 대략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쳤다. 이 연구의 절차는 크게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으로 나뉜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면접용 질문지를 개발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으로는 먼저 분석팀을 구성한 후 영역 부호화, 요약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단계를 거쳤으며, 각 단계에서 감수를 받았다.





[그림 1] CQR 연구절차

1. 연구대상

질적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한다(Glesne, 1999).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을 위해서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약 15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의 진로문제’라는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에는 진로미결정 여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다양한 고민들과 그러한 고민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계기, 진로 고민을 하면서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되어있었다. 연구진들은 질문지에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우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대학생 30여명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연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진로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진로고민의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진로 고민의 내용이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성별 및 학년이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는 12명의 최종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CQR 면접에 참여한 학생은 여학생 4명, 남학생 8명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각 3명이고, 전공은 언론홍보학 1명, 디자인학 1명, 경영학 4명, 컴퓨터공학 2명, 화학 3명, 공학 1명이었다. 간략한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사례번호	성별	학년	소속학과(전공)	사례번호	성별	학년	소속학과(전공)
사례1	남	1	언론홍보학	사례7	남	3	공학
사례2	여	1	디자인학	사례8	남	3	경영학
사례3	남	1	컴퓨터공학	사례9	남	3	경영학
사례4	남	2	화학	사례10	여	4	경영학
사례5	여	2	화학	사례11	남	4	컴퓨터공학
사례6	여	2	화학	사례12	남	4	경영학

2. 연구도구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개발하였다. 면접용 질문은 크게 진로고민의 내용 및 고민의 시작 계기 그리고 고민의 심각도, 진로고민의 원인, 진로고민으로 인한 파생문제와 관련된 경험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의 예를 보면 “당신의 진로 문제 및 고민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진로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진로문제에서 파생된 다른 고민들이 있습니까? 고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와 같은 것이다. 자료수집에 앞서 전문가 2인에게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였다. 전문가는 진로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 중 1인은 이후 본 연구 감수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 면접은 분석팀 중 진로상담 전공의 석사과정생 2명이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실시하였으며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면접 후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축어록을 작성하고 각 사례에 사례번호를 부여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는 5명으로 구성된 분석팀과 두 명의 감수자가 참여하였다. 분석팀 중 세 명은 10년 이상 진로상담 실무 경험이 있고, 진로상담분야의 연구를 다수 진행한 바 있는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나머지 두 명은 진로상담전공 석사과정생이다. 감수자 중 한 명은 진로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다른 한 명은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인 동시에 CQR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였다. 분석팀은 자료 분석에 앞서 CQR 관련 문헌을 읽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한 사례를 함께 분석해보는 모의 분석 과정을 통해 CQR에서 제안하는 훈련 절차를 거쳤다(Hill et al., 2005). 자료 분석시 분석팀원들은 CQR에서 제안된 대로 먼저 각자 면접 자료를 읽고 분석한 후 함께 모여 토론하여 분석팀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처음 분석을 실시할 때 두 사례에 대해서 면대면 만남을 통해 이 과정을 거치고, 이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면대면 만남을 가졌다. 이후 영역 부호화와 요약반응 구성, 교차분석의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면대면 만남을 우선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의견교환을 보충하였다. 또한 분석팀의 분석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수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영역 부호화에서 요약반응, 요약반응에서 교차분석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 각각의 단계에서 감수자의 검토를 거쳤으며, 감수자의 논평을 반영하여 분석팀은 분석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내용을 확정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영역(domain)은 유사한 주제에 관한 자료를 묶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틀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분석팀은 먼저 두 개의 사례를 읽고 영역의 목록을 구성하였고, 이후의 사례를 한 개씩 읽어가며 이 초기의 영역 목록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영역을 삭제하여 영역 목록을 재구성해나갔다. 감수자는 인터뷰 자료를 읽고 분석팀이 구성한 영역이 자료를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요약반응(core idea)은 연구 참여자들이 각 영역과 관련해 말한 내용의 핵심을 명료화한 것으로, 분석자가 그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다(Hill et al., 2005). 영역을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석팀원 각자가 구성해온 요약반응을 서로 토의함으로써 합의된 요약반응을 구성하였다. 감수자는 영역의 중요한 내용이 모두 요약되었는지, 요약반응이 원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수하였다.

교차분석(cross analysis)은 각 사례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한 단계 나아간 추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분석팀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요약반응을 사례별로 비교하고 유사한 요약반응을 범주화하였다. 감수자는 각 요약반응이 적절하게 범주화되었는지, 범주화 내용이 요약반응을 잘 반영하는지 혹은 재구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고민의 내용과 고민이 시작된 시기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사례는 총 12사례로서 각 사례는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진로미결정의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이다. '진로고민의 내용'과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와 심각도'를 중심으로 범주를 나누고 각각의 하위 범주를 표 2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목표의 부재,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음, 취업에 대한 걱정,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 모름, 진로결정시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진로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함, 성적이 좋지 않음'으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드문(1)'에서 '대부분(6)'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한 진로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대학교 때', '중학교부터 대학선택 시기까지', '책이나 수업을 듣고 난 후', '군복학 후', '대학교 4학년 올라와서'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드문(1~5)' 사례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로고민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6)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한편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5)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경우(2)도 드물게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고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진로고민의 내용 및 고민이 시작된 시기, 고민에 대한 주관적인 심각도

영역	범주	하위범주	사례수
진로고민	내용	진로목표의 부재	대부분(6)
		전공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음	대부분(6)
		취업에 대한 걱정	드문(4)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 모름	드문(3)
		진로결정시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드문(2)
		진로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함	드문(2)
		성적이 좋지 않음	드문(1)
	시작 시기	대학교 때	드문(5)
		중학교 때부터 대학 선택 시기까지	드문(4)
		책이나 수업을 듣고	드문(4)
		군 전역 후/복학 후	드문(3)
	심각도	대학 4학년 올라와서	드문(1)
		아주 높음	드문(5)
		어느 정도	대부분(6)
	별로 없음	드문(2)	

주. 모든: 모든 사례(12)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먼저, 대학생들은 진로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목표의 부재로 고민하거나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사례가 대부분(6)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한, 취업 자체에 대한 걱정이 주된 진로고민인 대학생들(4)과 직업선택 및 구직방법을 몰라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3), 진로결정시 부모님과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는 학생들(2), 진로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해 고민을 하는 학생들(2)도 드물게 있었다. 한편 대학에서의 성적이 안 좋은 것 자체를 고민하는 학생(1)도 있었다.

“그게 뚜렷한 목표가 아니고 제 상황에 따라서 또 계속 바뀔 수 있는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여러개 인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하고 저것도.. 이게 안되면 이거고 이게 안되면 이거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사례 9)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거랑 과거 안 맞아가지고. 과거 맞게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요.”(사례 4)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가야 되는데. 요즘은 힘들단 말이예요. 취업하는게. 너무 과정보도 많고. 하나 뭐 진행 중인데, 4단계 있고. 서류, 인적성, 면접 2번 막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런게 힘든 거죠.”(사례 10)

“제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직 모르고 제가 적성이 이제 맞는 과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전문계고 출신이라서 영어, 수학, 물리 공부가 모자라서.. 기초 전반적인 지식도 많이 모

자라서.. 어떻게 정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사례 3)

“그러니까 대학원은 어차피 제가 재밌는 공부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가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겁이 안 나는데, 그 집에서는 계속 교직하라고.”(사례 6)

“그러니까 그런게 없는 처지에서 많이 신경이 쓰이죠. 당장 이제 목전에 있는 게 취업인데 취업에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계속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말로만 어떻게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게 마음에 좀 걸려요.”(사례 11)

“지금 4학년 졸업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이제 딱 눈에 떨만한 성과나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학시험도 올해 봤고 그래서 좀.. 뭔가 조바심나고 그런게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사례11)

한편, 이러한 진로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학생들마다 매우 다양하였는데, 시기적으로 대학교에 들어와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5)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선택시기 때 진로고민을 하게 됐다는 학생들(4)도 있었다. 한편 책을 읽고 난 후나 진로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난 후(4) 진로고민을 하게 됐다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군대 전역 후 또는 복학 후에 진로고민을 하게 됐다는 학생들(3)도 있었으며, 대학 4학년에 올라와서야 진로고민을 하게 됐다는 학생도(1) 있었다.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누구나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연함이 학년을 올라가면서 모아지는 그런게 아니라 더 커졌어요. 1,2학년 때는 아무래도 학교생활에 치중하게 되고, 3학년 때부터 조금 심했어요.”(사례 10)

“고 3때요. 막 모의고사할 때 대학교랑 과를 쓰잖아요. 근데 막 화학과도 있고 화학공학과도 있는데 이거 차이점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직업을 하기에 유리한 과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사례 5)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시기는 이번에 3학년 1학기 초반에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사례 8)

“군대 이제 막 전역할 때쯤에 그때부터 이제 ‘아~ 사회에 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1학기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적응이 안 되어서 1년 동안은 내가 무얼 해야 될지 정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이번 년도 초에 이제 내가 무얼 해야할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사례 8)

이러한 진로고민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자신들의 진로고민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6),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거나(5),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2) 한 학생들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뭐 재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보단 나은거 같아서 저는 점수를 1번에서 10번 이렇게 따

질 때 6~7점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이런 고민 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심각한 순으로 치면 6~7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점수를 뒀어요.”(사례 1)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민이 앞으로 제 미래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지금 일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잖아요.”(사례 10)

2.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고민의 원인

대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진로고민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진로고민의 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하위 범주를 표 3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진로고민의 원인을 ‘흥미-적성 혹은 적성-전공간의 불일치’, ‘정보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 ‘부모님 반대 혹은 가정형편’, ‘성적이나 취업률에 따른 진학 결정’, ‘흥미, 적성 개발하지 못함’, ‘비현실적인 계획’, ‘성적부진’, ‘중고등학교 때 적절한 진로발달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인정욕구와 실패불안’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드문(2~5)’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고민의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진로고민의 원인

영역	범주	하위범주	사례수
진로고민 원인	개인내적 문제	흥미-적성-전공 불일치	드문(5)
		흥미, 적성 개발하지 못함	드문(4)
		성적부진	드문(3)
		인정욕구와 실패불안	드문(2)
	진로정보 및 결정 문제	성적이나 취업률에 따른 진학 결정	드문(4)
		정보부족 / 잘못된 정보	드문(5)
		비현실적인 계획	드문(4)
	지지적 환경 부재	부모님 반대 / 가정형편	드문(5)
		중고등학교 때 적절한 진로발달 기회를 갖지 못해서	드문(2)

주. 모든: 모든 사례(12)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고민의 원인은 크게 개인내적 문제와 진로정보 및 결정 문제, 지지적 환경 부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하위범주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미결정의 원인에 대해 크게 전공과 자신의 흥미 및 적성과의 불일치(5), 정보 부족 및 잘못된 정보(5), 부모님 반대 및 가정형편(5)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다른 이유로는 성적이나 취업률에 따른 진학 결정(4)과 흥미, 적성을 개발하지 못함(4) 그리고 비현실적인 계획(4)도 있었다.

“설비가 기계 쪽이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긴 힘든데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일 마치고 나서도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고. 이게 ‘내가 화학과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화학 이런 곳에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재미를 느낄까?’ 그냥 어쩌다가 가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사례 4)

“전공도 내가 생각했던 전공이 아닌 거예요. 교양과목 때문에 힘들고, 전공 과목에도 흥미를 못 붙이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과제는 그 직전날 밤새서 그냥 내고. 가기도 싫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직 정시 끝내고서 좀 며칠 쉬 다음에 학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그럴 시간이 되게 촉박하거든요.”(사례 2)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이제 과정들이..그리고 어디다 정보를 구할 때도 없고, 신문은 봐도 이쪽 정보를 구할 데가 없고..”(사례 3)

“아버지께서 또 같은 공학도. 이쪽이거든요. 그때 아빠가 교직이수를 안 한 게 너무 한이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더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저한테는 강요죠.”(사례 6)

“일단 부모님이 고등학교 수능을 봤는데 재수를 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저는 그게 좀 컸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부터 너는 재수는 안 시킬 거니까 그냥 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맞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그렇게 저가.. 열심히 안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죠.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제일 크죠”(사례 9)

“저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게 먼저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흥미가 있는 것은 잘 하잖아요. 이제 그 두 개를 접합,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제가 잘하면서도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개발해내는 그 과정을 이제 잘 찾지 못하겠어요.”(사례 3)

“현실성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크게 잡아서 결국에는 이제 학기가 끝날 때는 결국 잘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너무 커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많이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결국에는 계획을 잘못 짰 것도 있는데 웬지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계획을 많이 짰다보니까 이것저것 겹치는 경우도 많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사례 11)

이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성적부진(3)과 중고등학교 때 적절한 진로발달 기회를 갖지 못함(2)과 자신의 인정욕구와 실패불안(2)을 보고한 학생들도 드물게 있었다.

“제가 성적 중에서도 교양, 교직, 전공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공 성적 쪽이 이 셋 중에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이게 전공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해도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사례 12)

“고등학교 때 진로상담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고민을 덜했을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때는 딱히 목표가 없었어요. 뭘 해보고 싶다고 딱 진짜 아나운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사례 7)

“어렸을 때는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칭찬 받는 것을 좋아했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어릴 적에. 그래서 시험 보면 상 같은 거 계속

받으니까.. 그런 거를 부모님이 계속 좋아라 하시니까 그런거 통해서 이제 인정받고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런게 아직까지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기가 열심히 한걸 가지고서 성과를 내고 그걸 인정받는 거에 대한 그런 취향이 있는 거죠.”(사례 11)

3. 진로고민으로 인한 파생문제 및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과 관련되어 파생된 다양한 문제 및 결과들에 대해 '내적 혹은 외적인 부정적인 결과'와 '인지적 대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적인 부정적 결과로는 '전공 성적 부진 및 흥미저하'와 '부모와의 갈등'을 보고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드물게(3~4) 나타났다. 한편 내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다양하게 보고하였는데 '의욕상실', '불안과 초조', '자신감 하락', '정체감 혼란'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드문(3)'에서 '대부분(6)'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진로고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인지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현실에 안주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드물게(4~5) 나타났다. 이러한 파생문제 및 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진로고민으로 인한 파생문제와 결과

영역	범주	하위범주	사례수
파생문제와 결과	외적인 부정적 결과	전공성적 부진 및 흥미저하	드문(4)
		부모와의 갈등	드문(3)
	내적인 부정적 결과	의욕 상실	대부분(6)
		불안/초조	드문(5)
		자신감 하락	드문(3)
		정체감 혼란	드문(3)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	드문(5)
	인지적 대처	현실 안주	드문(4)

주. 모든: 모든 사례(12)에서 나타남, 대부분(6이상): 50%이상에서 나타남, 드문(5이하): 50%미만

주된 진로고민으로 인한 파생문제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의한 외적인 부정적 결과는 전공성적 부진 및 흥미저하(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갈등(3)이 있었다.

“학교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공부하고 싶고..”(사례 2)

“좀 답답하죠 많이..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 상황이 그렇다고 제가 하고 싶은걸 못 하는게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막 고집 부려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자니 또 부모님한테 그러긴 어렵고 해서 되게 마음 갈등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사례 9)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의한 내적인 부정적 결과에서는 의욕상실(6)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났고, 불안과 초조(5), 자신감 하락(3), 정체감 혼란(3)을 드물게 보고하였다.

“요새 조금 무기력하긴 해요. 이걸 해도 내가 원하는.. 앞으로의 내 미래가 이쪽이 아닐..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만약에 제가 그쪽 직업을 택하면 되게 동떨어진 거 같아요. 학교생활이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도 막 휴학하는 애들이 지금 부럽고 그러더라고요.”(사례 7)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함 불안감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불안하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마감 시간은 막 오는데 아직 프로젝트를 처음도 시작 안한 그런 기분. 그게 더욱 더 저를 막 몰아가는 기분이었어요.”(사례 10)

“제 자신이 인제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다보니까 위축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해지고 아무래도 그 말로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할게 필요하잖아요.”(사례 11)

“그냥 일단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제가 누군지부터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되게 근본적인 원초적인 생각을 한 거 같고..”(사례 9)

한편 진로고민에 대한 인지적인 대처로서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5)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고(4) 보고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다.

“휴학이나 편입. 이렇게 걱정될 것 같아요. 휴학을 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뭘 공부를 하면서 휴학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못 정하니까”(사례 5)

“대외활동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고, 당장 학점 준비만 하고 그래요.”(사례 5)

V. 논의

이 연구는 진로고민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 그리고 관련된 과생문제 및 결과에 대해 진로미결정 대학생들과의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영역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논의를 각 영역별로 정리해 보고 대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고민 문제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보고된 내용은 ‘진로목표의 부재’이다. 이지연, 정숙영, 방혜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진로상담 장기 내담자들 중에는 진로정보탐색 중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고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찾지 못해 장기적인 내담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

는 중·고등학교부터 시작된 진로목표의 부재 현상이 대학생들에게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이 향후 진로준비 및 취업준비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지 못해 더욱 막연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집단이 발생하고 이들은 주로 자신에게 적합한 준비보다는 학점이나 영어점수와 같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진로준비 및 취업 준비에 몰입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1997).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한 접근은 ‘목표설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생애발달적인 접근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진로목표가 없다는 문제와 더불어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문제 역시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학 진로상담 현장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는 진로문제의 원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생에게 전공이란 이미 ‘결정된 진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부단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전공이라는 결정된 진로가 적성과 맞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진로고민을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고민 중에 흥미로운 사실은 ‘취업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국 문헌들이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는 현재 어려운 취업 문란을 자신 스스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자체에 대한 진로고민은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이 학과 공부보다는 취업 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 김영경 (2008)의 연구과 맥을 같이 한다. Lent와 Hackett(1987)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이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자기 효능에 대한 기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Bandura, 1989).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 낮은 진로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추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례는 대학에 들어와서 고민하게 되었지만 특히 진로관련 책이나 강의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였다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관련 프로그램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기 위함인데(이제경, 선혜연, 2011)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다만 대학교 4학년에 들어와서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대학 내의 진로프로그램이 충분히 모든 학생들의 진로탐색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진로고민의 시기가 특히 어떤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진로고민의 심각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함’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진로문제가 대학상담센터에서 가장 많이 호소되는 문제이지만, 어떤 특정한 부정적응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대학 시절 어느 순간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진로고민의 원인은 크게 개인내적문제, 진로정보 및 결정 문제, 지지적 환경 부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개인 내적인 원인으로는 ‘흥미-적성-전공 불일치’, ‘흥미, 적성 개발하지 못함’, ‘성적부진’, ‘인정욕구와 실패불안’이 포함되며, 진로정보 및 결정 문제에는 ‘성적이나 취업률에 따른 진학 결정’, ‘정보부족/잘못된 정보’, ‘비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지지적 환경 부재로는 ‘부모님 반대/가정형편’, ‘중·고등학교 때 적절한 진로발달 기회를 갖지 못해서’가 분류되었다. 특히 진로미결정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지지적인 환경, 특히 부모 및 가정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 핵심범주가 ‘성공과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해 나감’이며, 특히 진로결정과정에서 부모와의 진로선택 갈등여부, 지속적인 환경적 지지 등이 중요한 개입요인이라고 밝힌 임은미(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이러한 진로고민의 세 가지 원인범주는 비슷한 비율로 보고되었는데 즉,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한 접근시 주로 개인의 내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진로상담 및 교육 방법을 넘어서서 개인의 외적인 다양한 변인들, 예를 들어 가족문제, 경제적 여건, 이전 진로의사결정 경험이나 진로교육 경험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진로고민으로 인한 파생문제 및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인 부정적 정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진로고민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로서 ‘의욕상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의욕상실과 고민의 심각도가 높지 않다는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한 대처방식이 회피적일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진로고민에 대한 파생결과로서 인지적 대처에 있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고민 역시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없애기 보다는 잘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하는 것이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에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해 CQR이라는 질적인 연구방법으

로 접근한 초기 연구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고민에 대한 내용 및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이 진로미결정자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진로를 결정하였으나 진로 고민이 있는 대학생들의 고민내용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더불어 진로고민에 대한 분석을 그 내용과 시작시기, 심각도, 원인, 파생결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진로고민 및 미결정의 원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추후 이러한 고민과 원인 사이에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한 그들의 행동 대처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고민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처행동과 그 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지(2007). 내담자 유형에 대한 상담자 평정일치도와 평정근거 일관성 간의 관계 : 고용지원 센터 직업상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2000).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탐색 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109-124.
- 김계현(2000). **상담심리학 연구**. 서울: 학지사.
- 김계현,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영경(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진숙, 강진구(2000).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VII.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18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선희, 박현주(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박제일, 임승환(2002). 대학생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유형과 성격유형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15-29.
- 선혜연, 김계현(2008). 청소년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 양난미(2006).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15(2), 353-366.
- 이득연, 홍경자(2004). 가족의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 합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09-120.
- 이제경, 문승규, 김현진, 염미영(2009). 대학에서의 학사경고 예방을 위한 대학적응 및 경력설계 프로그램개발. 2009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연구프로젝트보고서.

- 이제경, 선혜연(2011). **대학 취업지원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연구센터.
- 이제경, 이기춘, 김명선(2010). **대학생의 진로취업상담에 대한 기대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연구프로젝트 보고서.
- 이지연, 정숙영, 방혜진(2009). **사이버 진로상담 장기내담자 유형 및 효과적 상담 접근 방식 탐색**. **상담학연구**, 10(4), 2169-2186.
- 임언, 이지연, 윤형한(2004).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개발(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4-8.
- 임은미(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장미화, 임현술, 최원상(2005). **일개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상담 내용 및 만족도에 관한 조사**. **동국의학**, 12(1), 19-27.
- 장선철(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 조항(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 김계현, 이자명(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8). **청소년 위기상담 체제와 상담개입전략**. 한국청소년상담원.
- 최연화(2003). **전화상담의 문제유형과 상담자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 가톨릭 나눔의 전화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2009). **학업문제 유형분류의 탐색**. **상담학연구**, 10(1), 561-581.
- Amir, T., Gati, I., & Kleiman, T. (2008).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281-309.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s*, 44, 1175-1184.
- Blustein, D., Phillips, M., Jobin-Davis, M., Finkelberg, S., & Roarke, A. (1997). A theory-building investigation of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364-401.
- Bordin, E. S. (1946). Diagnosi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169-184.
- Callis & Robert (1965). Diagnostic classification as a research too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3), 238-243.
- Campbell, R. E., & Cellini, J. V. (1981). A diagnostic taxonomy of adult career problems.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175-190.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A behavioral index of career indecis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4, 507-512.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inzberg, E.(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lesne, C. (1999).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Holland, J. (1985). *Self-Directed Search*.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Hill, C. E., Thompson, B. J., & Hess, S. A., Know, S., Williams, E. N.,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ghughi, Masud. (1992). *Assessing child and adolescent disorders: a practice manual*. SAGE Publications Ltd.
- Jones, L. K.,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student: A model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Kim, K. H. (2011). Toward a science of preventive counseling.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1(1), 13-2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 P. Medical & Scientific Books.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Leong, F. T. L., & Chou, E. L. (1994). The rol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in the vocational behavior of asian american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 155-172.
- Merriam, S. B., & Simpson, E. L. (2000). *A guide to research for educators and trainers of adults*.(2nd Ed.) Krieger Pub Co.
- Multon, Wood, Heppner, & Gysbers. (2007). A Cluster-Analytic Investigation of Subtyp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Clients: Toward a Taxonomy of Career Problem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66-86.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Roe, A. (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Y: John Wiley & Sons.

Rounds, B. J., & Tinsley, H. E. A. (1984). Diagnosis and treatment of vocational problem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137-177.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Williamson, E. G. & Darley, J. G. (1937). *Student personnel work. An outline of clinical procedures*. New York, NY, US: McGraw-Hill. xxiv, 313 pp.

Zunker, Vernon G. (2002). *Using assessment results for career development*. Wadsworth Publishing.

* 논문접수 2012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2년 3월 8일 / 2차 심사 2012년 4월 17일 / 게재승인 2012년 4월 20일

* 선혜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청소년 진로상담' 등이 있다.

* E-mail: hyseon@konyang.ac.kr

* 이제경: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전문대학원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Holland 이론의 국내 연구동향 및 한국내담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대학교수를 위한 학생상담 가이드북', '진로상담이론',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이 있다.

* E-mail: ljk0314@koreatech.ac.kr

* 김선경: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기업상담소 방문결정 이유에 관한 개념도 연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각한 학교상담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Holland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적응도와의 관계: 이공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advice seeker's expectations on response to advice' 등이 있다.

* E-mail: skim@yongmoon.ac.kr

Abstract

Career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 Conc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Seon, Hye-Yon*
Lee, Je-Kyung**
Kim, Sun-Kyung***

The authors examined the career problems of 12 college students. A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ll participants and the information gained was analysed using the Conc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Hill, Thompson, Williams, 1997) approach. CQR requires that research members reach consensus about the classification and the meaning of data through three steps, namely, domain coding, core ideas, and cross subject analysis. Three domains emerged from the data were (a)contents, onsets, and severity of career problems, (b)reasons of career problems, (c)derived issues. Each domain had different categories and themes, which identify career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In the majority of cases, college students complained the absence of career goals, majors inconsistent with aptitudes, and anxiety about looking for a job.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practice and continued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college students, career problems, concensual qualitative research(CQ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 Full-time Lecturer,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